


| | | |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| 보도참고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19. 6. 15.(토) / 총 2매(본문2) |
| 담당 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임유현 ·☎ (044) 201-4129 |
|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·과장 이재평, 사무관 최승연, 주무관 정재엽 ·☎ (044) 201-3385, 3390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서울 내 아파트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- '18~'22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.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(3.3만호), 5년평균(3.2만호) 대비 약 32~36%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.

<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전망(만호) >

| | 10년 평 ('08-'17) | 5년 평 ('13-'17) | '18 | '19 ^e | 20 ^e | '21 ^e | '22 ^e | '18-'22 평균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| | | 10년 비 | 5년 비 | |
| 수도권 | 20.6 | 22.1 | 32.9 | 27.9 | 20.3 | 21.1 | 22.3 | 24.9 | 20.7% | 12.4% |
| (APT) | 12.9 | 12.4 | 23.9 | 20.5 | 13.5 | 14.9 | 14.9 | 17.5 | 35.9% | 41.7% |
| 서울 | 6.5 | 7.3 | 7.8 | 7.6 | 6.9 | 7.1 | 7.1 | 7.3 | 12.6% | △0.4% |
| (APT) | 3.3 | 3.2 | 4.4 | 4.5 | 4.1 | 4.3 | 4.3 | 4.3 | 32.1% | 35.7% |

-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.
 - '19.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.0만호로 '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.
 - 착공(1.1만호), 준공(1.5만호)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 물량이 약 50%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< 4월 누계 서울 인허가·착공·준공 현황 >

| | 인허가 | 착공 | 준공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'19.4월누계 | 20.3천호 | 11.1천호 | 14.5천호 |
| (5년평균 비) | 107.6% ↑ | 49.3% ↑ | 51.9% ↑ |

□ 서울 내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- '18년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,
- 이 중 98개 단지가 착공되어 공사 중으로, 이는 지난 5년('13~'17)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(85개*)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.

* 착공 단계 단지 수 : ('13) 65 → ('14) 88 → ('15) 81 → ('16) 90 → ('17) 101 → ('18) 98

< 서울시 재건축·재개발사업 추진현황('18.12월 기준) >

| 계 | | 정비구역 지정 | 추진위 구성 | 조합설립 인가 | 사업시행 인가 | 관리처분 인가 | 착공 |
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|
| 506 | | 94 | 91 | 89 | 69 | 65 | 98 |
| 재건축 | 198 | 6 | 51 | 43 | 18 | 38 | 42 |
| 재개발 | 308 | 88 | 40 | 46 | 51 | 27 | 56 |

□ 정부는 '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,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, 자족시설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경제, 6.15.) >

- ◆ 재개발·재건축 규제에...서울 '새 아파트' 17만 가구 줄어
 - 정비구역 7년간 363곳 해제
 - 서울 아파트 희소성 커지면서 경기·인천과 가격격차 벌어져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, 주택정비과 최승연 사무관(☎ 044-201-33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